

The cover art for World of Warcraft: The War Within depicts a dramatic scene at sunset. In the center, a tauren warrior with a large horned bovine head and a human-like body stands atop a rocky cliff, holding a curved blade aloft. The warrior is surrounded by other tauren, some in the foreground looking towards the central figure. The background features a forest of tall evergreen trees under a sky with soft, golden light from the setting sun. The overall tone is epic and heroic.

WORLD
WARCRAFT
THE WAR WITHIN

중심지

작가: ADAM CHRISTOPHER

5

고셰크 농장 전투

스토리

ADAM CHRISTOPHER

일러스트

BRUSH SAUCE STUDIO

편집

CHLOE FRABONI

디자인 및 아트 디렉션

COREY PETERSCHMIDT

세계관 자문

SEAN COPELAND

창작 자문

RAPHAEL AHAD, KEITH RILEY CO, AARON OLSON,
ABIGAIL MANUEL, CHRIS METZEN, STACEY PHILLIPS,
KOREY REGAN

제작

BRIANNE MESSINA, AMBER PROUE-THIBODEAU,
CARLOS RENTA, TAKAYUKI SHIMB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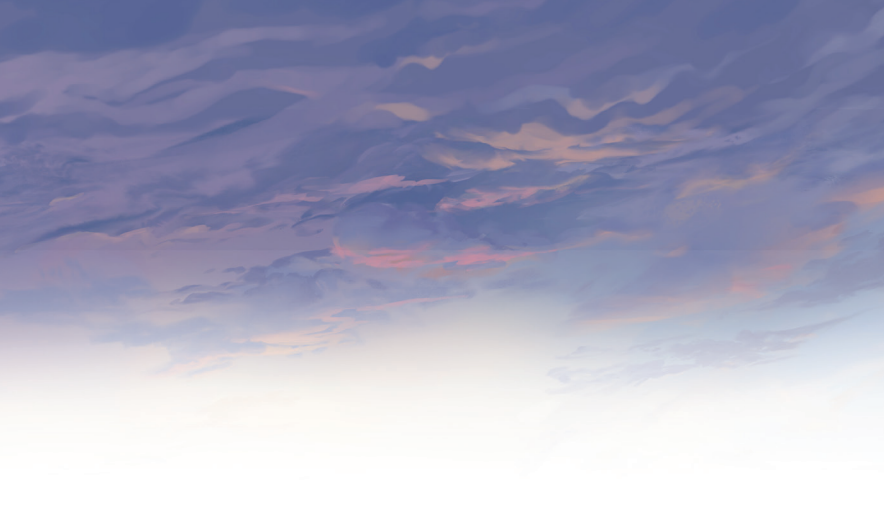


© 2024 Blizzard Entertainment, Inc. 블리자드 및 Blizzard Entertainment 로고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Blizzard Entertainment, Inc.)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출간: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이 소설은 픽션입니다. 이름과 캐릭터, 장소, 사건은 작가 또는 아티스트의 창작물이거나 픽션으로 사용된 소재이며, 생사를 막론한 실존 인물, 사업체, 사건 또는 지역과의 유사성은 전적으로 우연입니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저자 또는 제3자 웹사이트 또는 해당 콘텐츠에 대한 어떠한 통제권을 보유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게야라는 얼룩진 시야를 깜빡이며 몸을 일으켜 세웠고, 고개를 흔들며 정신을 차렸다. 가파른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진 그녀는 운 좋게도 바닥에 깔린 부드러운 물체에 부딪혔다. 건초인가? 게야라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인간이 사는 농장이었다. 고셰크에서 스트롬가드의 영토까지 밀려난 모양이었다. 인적이 드물었지만 게야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바위가 많은 언덕을 에둘러 전투의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향했고, 좋은 은폐물이 될 만한 큰 헛간으로 향했다.

“멈춰!”

작은 형체가 구조물에서 뛰어내려 자신의 앞을 가로막자, 게야라는 멈춰 섰다. 인간이었다. 어린아이. 열 살도 채 안 된 듯한 아이가 제 키보다 훨씬 더 크고, 무게를 감당하기에도 버거워 보이는 큰 검을 들고 있었다.

게야라는 치밀어오르는 구역질에 싫은 소리를 냈다. 마란이 그 정도로 절박했던 말인가? 저런 어린아이를 소집할 정도로?

“우리 농작물을 가져가지 마!” 소년은 다루기도 힘들어 보이는 무기를 힘껏 들어 올리며 소리쳤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계절 내내 열심히 일하셨어. 성채에서 수확물 대부분을 세금으로 가져갔단 말이야. 굶어 죽을 것 같다고! 가져가게 두지

않을 거야!”

게야라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 아이는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집인 농장을 지킬 뿐이었다. “애야, 널 해칠 생각은 없다.” 게야라가 어르듯 달랬다. “도둑질하러 온 것도 아니야. 나도, 마그하르도.” 그녀는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다.

소년은 비틀거리다 뒤로 넘어졌다. 무기를 버리고 헛간을 향해 달려가던 아이는 두 손에 뒷덜미를 붙잡혔다.

“오지 말란 말이야!”

게야라는 발걸음을 멈추고 헛간을 들여다보았다.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던 그곳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이 숨어 있었다. 어린아이는 고사하고 갓난아이까지도. 게야라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자 인간들은 공포에 질려 움츠러들었다.

군인은 없었다. 저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꿈이나 약속, 우연한 기회를 따라서, 평화와 좋은 일자리를 찾아 고원에 정착해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한 삶을 열심히 가꾸어 나가는 자들이었다. 그리고 지금, 저들은 원하지도 않았던 싸움에 휘말린 상황이었다.

그저 살고 싶을 뿐인데.

앞에는 두 남자가 서 있었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고, 둘 다 평생 고된 노동에 시달렸는지 마른 체형이었다. 노인은 깡이를, 젊은이는 구부러진 갈퀴를 무기랍시고 들고 있어 게야라를 안타깝게 만들었다.

노인은 반항하듯 턱을 들어 올렸지만, 목소리에는 떨리는 두려움이 역력하게 묻어 나왔다.

“마란 님이 너희 오크에 대해 다 말해주셨다! 피에 굶주린 잔혹한 족속이라고!”

“그리고 굶주렸다고!” 젊은 남자가 말했다. “그렇게도 우리가 가진 걸 탐내고 싶더냐? 우리 모두를 찢러 죽이고 빼앗아 가고 싶냐고!”

게야라는 온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자신이 무척이나 크게 보일 것이다. 전쟁에 대비해 단련한 이 모습이 무섭게도 보일 터. 사람들은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너무나도 처절하게. 그리고 게야라는 제 동족도 같은 입장일 거란 걸 깨달았다. 지금 고세크 농장에서도 같은 장면이 너무나 쉽게 펼쳐지고 있을 테니까. 오크 가족과 농부들은 얼굴도 모르는 끔찍한 적과 맞서고 있었다. 죽이고, 빼앗고, 정복하기 위해 온 적과.

그녀는 한 발짝 물러섰지만, 외려 미세한 움직임에도 인간 전체가 흠칫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평화요.” 게야라가 입을 열었다. “우리 세상에서 벌어진 전쟁을 피하러 왔소. 싸우러 온 것이 아니오.”

하지만 소용 없었다. 인간들은 듣고 있지도 않았다. 저들에게는 그저 크고, 강하고, 무서운 적뿐만이 보였다. 다르니까.

7군단은 강력했지만, 게야라는 전투가 일어나기 전부터 스트롬가드인의 숫자가 적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코르크론의 지원까지 등에 업은 마그하르는 3 대 1 혹은 그 이상으로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마란 트롤베인이 지독한 증오심에 휘둘러 승산을 생각지 않고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대학살이 될 것이 자명했다. 군단병의 전투가 끝나면 다음으로 칼자루를 쥐어야 하는 건 농부들이다. 인간은 전멸할 것이다. 게야라는 바로 그 생각에 괴로웠다. 이 헛간에서 아이들은 증오를 배웠고, 이는 다음 세대에 대물림될 것이다. 명예 없는 전쟁은 끝없는 적개심의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승리를 거둔다고 한들 이 예감을 기정사실로 굳힐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라면 이 악순환을 타파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마란은 게야라를 싫어한다. 게야라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마란의 증오에 휘둘러 자기 자신이나 마그하르를 변하게 둘 생각은 없었다.

그녀는 스랄의 말을 떠올렸다. 스트롬가드가 고통에 시달리는 원인을 찾으라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정답은 이곳에 있었다. 스트롬가드와 망치 주둔지는 공통점이 훨씬 많았다.

“게야라!”

늑대를 탄 스랄이 나타나자 인간들은 비명을 질렀다. 게야라가 손을 들어 가만히 있으라고 손짓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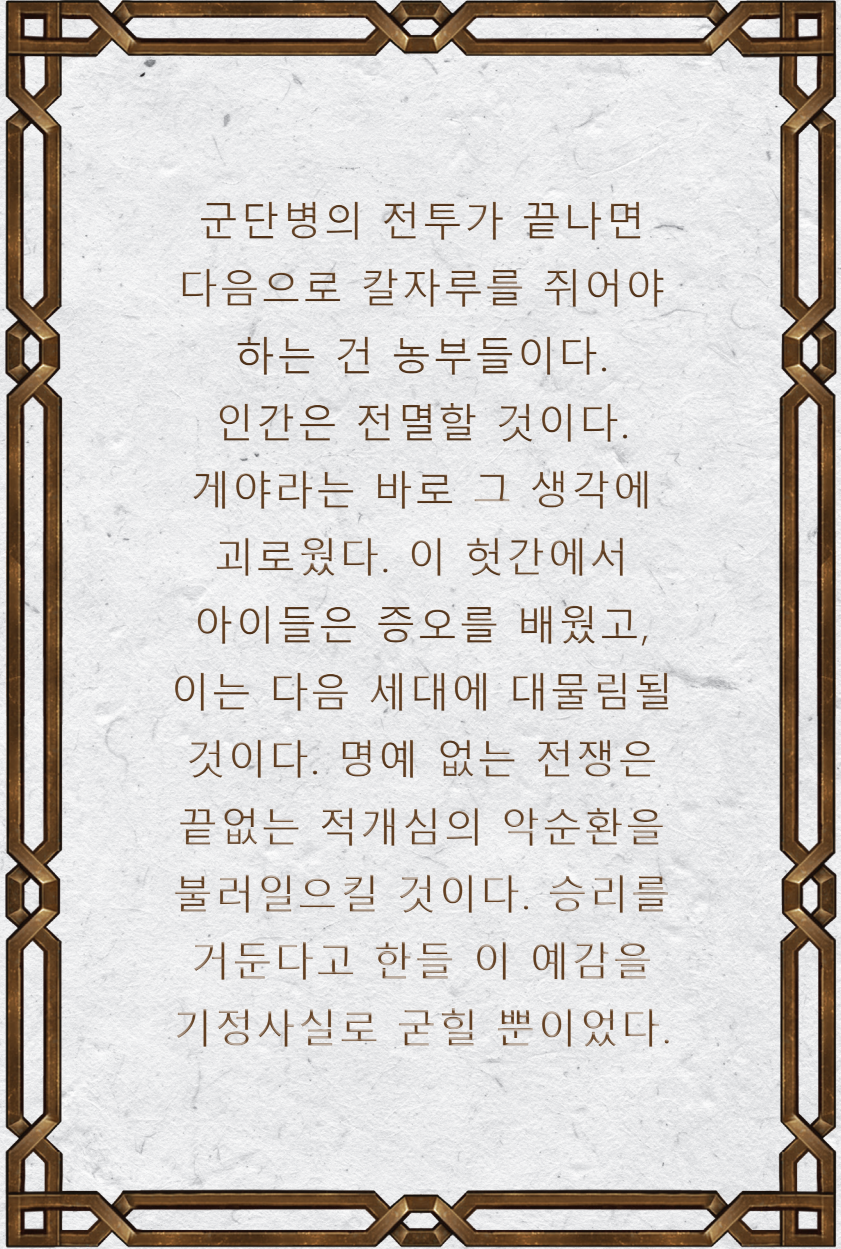
“막을 수 있습니다.” 게야라가 스랄에게 말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스랄은 인간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싸워야 할 전투는 많지만 이번만큼은 아니라이오. 그대는 저 사람들을, 그대의 동족을 구할 수 있소. 그럴 만한 힘이 있으니까.”

게야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게야라가 스랄의 뒤에 있는 탈것에 몸을 실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랄이 고삐를 당겼다. “이제 알 것 같소. 일단 아그라를 찾아야 하오. 제이나와 함께 최선을 다해 싸움을 저지하고 있대오.”

스랄은 고함을 지르며 탈것 재촉했고, 둘은 언덕을 타고 올라갔다.



군단병의 전투가 끝나면
다음으로 칼자루를 쥐어야
하는 건 농부들이다.
인간은 전멸할 것이다.
게야라는 바로 그 생각에
괴로웠다. 이 헛간에서
아이들은 증오를 배웠고,
이는 다음 세대에 대물림될
것이다. 명예 없는 전쟁은
끝없는 적개심의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승리를
거둔다고 한들 이 예감을
기정사실로 굳힐 뿐이었다.



‘가망이 없어. 전장을 가로지르던 제이나나의 생각이었다. 최선을 다해 비전 마법으로 양측의 전투원들을 멀리 떨어뜨려 놓았지만, 결국 제이나나의 몸은 하나뿐이었다. 전황을 충분히 파악한 지금은 어느 쪽이 승리할지 너무나도 명징했다.

마란은 승부수를 띄웠고, 패배했다. 이제 너무 늦기 전에 그녀를 찾아야 했다.

제이나나는 발밑으로 비전 전령을 소환해 공중으로 높이 떠올랐고, 마란을 찾아 두리번거렸다. 그녀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었다. 마란이 바로 앞에서 병력을 다그치고 있었다. 제 통치권을 상징한다고 여기는 늑대 가죽을 두른 채로.

제이나나가 전령의 소환을 해제하자 발밑에서 사라졌다. 그녀는 그 순간의 추진력을 이용해 내달려 마란 옆으로 착지했다. 제이나나가 차원문을 소환한 뒤, 마란의 허리를 끌어당겨 함께 뛰어들었다. 두 사람은 어느 정도 떨어진 깨끗한 땅 위에 떨어졌고, 차원문이 입을 닫듯 닫혔다.

마란이 일어나려고 했지만 제이나나의 동작이 더 빨랐다. 제이나나는 섭정에게 지팡이를 겨누었다.

“얼라이언스는 같은 편을 이런 식으로 대합니까, 제독님? 무력으로 복종을 강요하는 겁니까?”

제이나나가 다가섰다. 필요하다면 섭정을 제압할 생각이었다. “마란, 정신 차려요! 얼라이언스가 무의미한 싸움을 한다고 일침을 놓을 땐 언제고, 정작 당신이야말로 가장 무의미한 싸움을 벌이고 있지 않나요?” 지팡이를 타고 비전 마력이 쇠도했다. “당신은 졌습니다. 이 이상 스트롬가드에, 얼라이언스에 피해를 끼치게 두지 않을 겁니다.”

두 사람 위로 펼쳐진 달빛의 밤하늘이 붉은 섬광으로 타올랐다. 제이나나는 놀라 뒤로 물러났고, 눈을 가리는 마란에게서 섬광이 빛나는 방향으로 주의를 돌렸다. 두 여인을 북쪽을 바라보았다. 근처 언덕 꼭대기 위로 타오르는 불꽃이 밤하늘로 솟구쳤다. 전장의 코르크론과 7군단이 얼어붙은 풍경 전체를 비출 만큼 찬란하게 빛났다. 밝은 태양으로 밝혀진 한 형체에 모두의 시선이 쏠려 있었다.

게야라였다.

탈것에 탄 마그하르의 지도자는 전쟁 뿔피리를 입에 가져다 댔다. 전장에 울려 퍼지는 소리와 함께 아그라와 스랄 두 사람이 제이나나의 시야에 들어왔다.

전쟁 뿔피리 소리가 잦아들면서 게야라가 입을 열었다. 아라시 고원의

물결치는 풍경이 완벽한 천연 증폭기라도 된 듯, 게아라의 힘찬 목소리를 더욱더 강렬하게 울려 퍼지게 해주었다. “이건 전투가 아니다! 학살에 무슨 명예가 있겠는가! 코르크론과 마그하르는 철수하겠다. 7군단과 스트롬가드 군대도 물러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새롭게 자리를 옮긴 제이나가 전장을 훑어보았다. 떠오르는 태양의 빛이 망치 주둔지에서 저 지평선 너머 스트롬가드까지 손을 뻗치고 있었다. 동시에 전투가 빚어낸 끔찍한 대가를 조명했다. 고원 지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시신들이 보였다. 양 진영은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스트롬가드인, 마그하르, 7군단, 코르크론.

“스트롬가드는 들어라!” 게아라가 말을 이어 나갔다. “이 땅은 그대들의 것이다. 다만 마그하르도 주목하라. 이 땅은 우리의 것이기도 하니깐. 이곳에는 우리 두 종족이 나눌 공간도, 자원도 충분하다. 협력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 전투는 정당하지 않으나, 어쨌든 그대들의 힘이 필요하다. 새로운 땅이 기다리고 있다. 오크나 인간뿐 아니라 아제로스의 모든 종족을 위협하는 새로운 적도 도사리고 있다. 우린 카즈 알가르로 진격할 것이다. 7군단은 우리를 따라 올 수 있겠는가?”

전장에 적막이 감돌았다. 제이나가 지켜보는 가운데, 강인한 인상의 코르크론 장군이 대열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불꽃이 타오르는 언덕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근처의 7군단 전열에서 기사단 사령관 한 명이 나타나 오크 장군에게 다가갔다.

제이나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찰나, 코르크론 지도자가 손을 내밀었다. 기사단 사령관은 잠시 멈칫하다가 뺨은 손을 움켜쥐었다.

“아직 안 끝났어.” 마란이 이를 악물고 힘주어 말했다. 다른 이들을 바라보던 제이나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나는 백성의 뜻을 받들었을 뿐이야. 이 몸에 아라소르의 피가 흐르는 한.....”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섭정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는데 자리를 비켜줄 수 있겠소, 제독?”

다나스 트롬베인이 전장에 나타나자 제이나가 한쪽으로 물러섰다. 스트롬가드 군 수뇌부가 그 뒤를 바짝 따랐다.

마란이 눈을 가늘게 썼다. 걸어오는 삼촌을 보며 그녀는 제이나를 똑바로 응시했다. “성채 지하에서는 자비를 베풀었지만, 같은 실수를 두 번씩이나 반복하진 않을 거요.”

제이나가 다나스의 곁에 섰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롬가드에 입성한 순간부터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상황이 펼쳐졌으니까요. 급사가 당신에게

“스트롬가드는 들어라!”
게야라가 말을 이어 나갔다. “
이 땅은 그대들의 것이다.
다만 마그하르도 주목하라. 이
땅은 우리의 것이기도 하니까.
이곳에는 우리 두 종족이 나눌
공간도, 자원도 충분하다.
협력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 전투는 정당하지
않으나, 어쨌든 그대들의
힘이 필요하다. 새로운 땅이
기다리고 있다. 오크나 인간뿐
아니라 아제로스의 모든 종족을
위협하는 새로운 적도 도사리고
있다.”

바로 편지를 가져다 바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죠.”

“그래서 까마귀도 같이 보냈더구나.” 다나스가 말을 이어받았다. “앞을 내다본 혜안이었던 셈이지.”

마란이 제이나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지만 스트롬가드 군대 대장에게 제지당했다.

“브루스텐 대장. 역시 시의적절하게 와줬구먼.”

“주군.” 대장이 고개를 숙였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현 시간부로 마란 트롤베인을 섭정에서 해임하겠네. 방으로 데려가 언급하도록. 추후 거취는 내가 결정할 테니.” 다나스는 다른 일행을 불렀다. “수색대를 편성해 지지자들을 데려오게. 아직 많이 남아 있을 걸세.”

“조심하세요.” 제이나가 입을 열었다. “마란에게는 자타시아라는 첩보단장이 있습니다. 마란의 최측근이에요. 활 솜씨나 독을 다루는 실력도 상당합니다.”

렌 대장은 거수경례를 한 후 부하들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제이나는 언덕 꼭대기를 돌아보았다. 점점 사그라드는 아그라의 빛 아래로 내려오는 3명의 오크가 보였다.

“스랄! 무사했군요!”

스랄이 게야라에게 손짓했다. “마그하르에 큰 신세를 졌다오.” 이내 그가 다나스에게로 다가갔다.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인사를 나눴고, 다나스는 일행에 예를 갖춰 인사했다.

“스랄, 친구여. 아그라. 게야라도 있었군. 만나서 영광이오. 섭정의 실책에 대해 사과하리다. 녀석이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군. 스트롬가드는 마땅한 배상을.....”

“사양하겠습니다.” 게야라가 말허리를 끊었다. “마란의 행동을 빌미로 당신의 동족을 더 벌주고 싶진 않습니다. 이미 큰 손실을 입지 않았던가요. 종족 간의 적대감이 더 커지기 전에 그만 잠재우고 싶습니다.”

“그 점에는 나도 격하게 동의하오.”

다나스가 제이나에게 고개를 돌렸다. “쿠르드란과 투랄리온이 스트롬가드에서 기다리고 있소. 같이 가는 게 좋겠구려.”



탈가르와 아이트리그, 코르크론, 7군단까지 합류한 일행이 스트롬가드에 도착할 무렵에는 해가 서서히 지평선 위로 고개를 들고 있었다.

쿠르드란 와일드해머와 투랄리온은 성채 밖 광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투랄리온이 제이나와 악수를 나누었다.

“제독님, 로서의 후예들은 부름에 응답할 것입니다.”

쿠르드란이 헛기침을 토했다. “좀 과한 거 아니오, 투랄리온? 그 이름을 안 쓴 지..... 얼마나 됐더라? 강산이 두 번은 바뀌었나? 더 되나?”

성기사가 씩 웃어 보였다. “이제 다시 쓸 때도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가 제이나에게 고개를 돌렸다. “다나스에게 보랄러스 회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회담에 참석하지 못한 불찰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물론이죠. 그런데 광휘의 노래 상황은 어떨죠? 스톨윈드는 어떤가요?”

투랄리온이 입을 다물었다. “여전히 걱정되긴 합니다만, 겐에게 맡겼으니 제가 없는 동안에도 잘 관리해 주실 겁니다.”

“좋은 소식도 있소.” 다나스가 말했다. “이번 주 내로 쿨 티란 함대가 도착할 것이지요.”

“훌륭하군요.” 게야라가 말했다. “슬슬 준비해야겠습니다.” 그녀가 오크 동료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나의 장군, 탈가르.” 부름에 장군이 고개를 숙었다. “조언가 아이트리그 님.”

아이트리그는 우뚝 섰다. 다나스와 투랄리온은 불편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먼저 침묵을 깬 건 다나스였다. 그는 검은바위 족장을 향해 무뚝뚝한 목례를 보내고 헛기침을 했다.

“다시 만나 반갑소.” 그가 친구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안 그런가, 투랄리온?”

“물론입니다.” 투랄리온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와 아이트리그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아이트리그가 제이나를 응시했다.

“정말 이 둘을 대표로 보내야겠소?” 아이트리그가 활짝 웃었다. “4차 대전쟁에서 저 둘을 상대하면서 별다른 감흥을 못 느꼈다오. 얼라이언스에서 좀 더..... 젊은 피를 수혈할 순 없는 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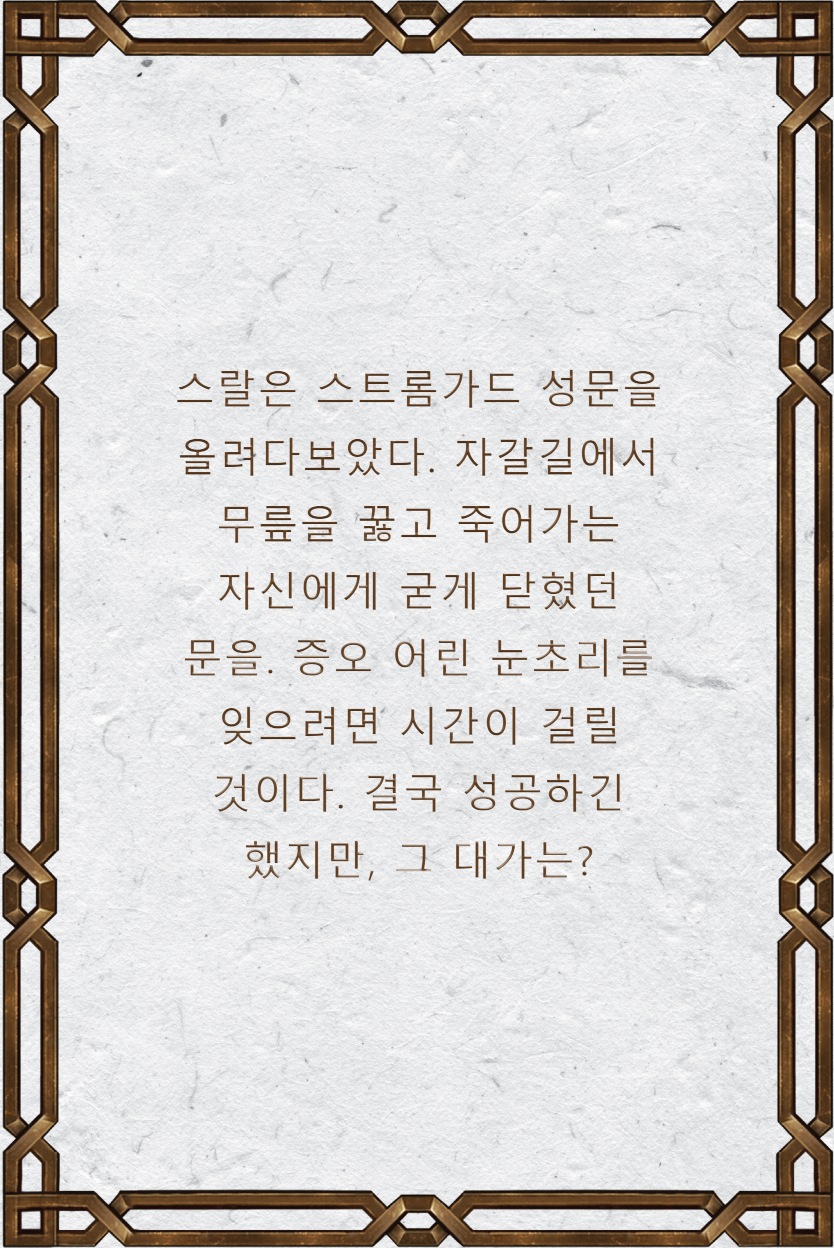
쿠르드란은 제이나가 세 사람 사이에 끼어들기 전에 코웃음을 터뜨렸다.

“서둘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제이나가 돌아서서 아이트리그에게 예를 갖춘 미소를 지어 보였다.

“훌륭한 제안이오.” 다나스가 긴 숨을 내쉬었다. “모두 따라오시오.”

일행은 스트롱가드 요새로 향했다. 그 뒤로 스랄과 아그라가 따랐다. 당면한 위기를 수습한 지금, 다시금 본래 임무에 집중할 때였다.

아그라가 스랄의 손을 잡았다. “공격 부대는 확보한 셈이네요.”



스랄은 스트롬가드 성문을
올려다보았다. 자갈길에서
무릎을 꿇고 죽어가는
자신에게 굳게 닫혔던
문을. 증오 어린 눈초리를
잊으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결국 성공하긴
했지만, 그 대가는?

스랄이 고개를 끄덕였다. “실패할 여지는 없소. 세계의 운명이 달렸으니까.”

“실패할 일 없을 거예요.” “이 전투에서도 이겼잖아요. 다음 싸움에서도 이길 거고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걸리는 거죠?”

스랄은 스트롬가드 성문을 올라다보았다. 자갈길에서 무릎을 꿇고 죽어가는 자신에게 굳게 닫혔던 문. 증오 어린 눈초리를 잊으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결국 성공하긴 했지만, 그 대가는? 이들이 잘아타스와 그자의 계략에 집중하는 사이, 아라시의 땅에서는 어떤 증오가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걸까? 게야라와 마그하르는 나중에 또 어떤 씩씩한 수확을 거두게 될까?

이러한 상념이..... 스랄을 괴롭혔다. 마란은 붙잡혔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자신과 제이나 두 사람을 저격한 첩보단장을 비롯해 지지 세력이 아직 남아 있었다. 떠나기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스랄은 다나스의 충직한 부하들이 추적에 성공할 것이라 믿는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라면 이곳에 생겨나기 시작한 것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오래된 증오를. 스랄은 생각에 잠겼다. 승리할 때마다 계속해서 앙금처럼 고이는 증오를. 그래도 언젠가는 해소할 날이 오지 않을까.

어쩌면은.

작가 소개

Adam Christopher는 *Star Wars: Shadow of the Sith* 및 *Stranger Things: Darkness on the Edge of Town*을 집필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또한 큰 인기를 끌었던 CBS TV 쇼 *Elementary*와 수상 경력에 빛나는 *Dishonored* 비디오 게임 프랜차이즈의 타이인 소설을 맡기도 했다. Adam Christopher는 *Archie Comics*의 21세기형 슈퍼히어로 *The Shield*의 공동 제작자이며, *Image Comics* 소속 Greg Rucka와 Michael Lark의 *Lazarus* 시리즈 및 *Big Finish*의 *Doctor Who* 세계관 각본을 맡았다. 더불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Star Wars: From a Certain Point of View* 기념일 앤솔로지 시리즈에 기고자로 참여했으며, IDW의 전연령판 *Star Wars Adventures* 만화 각본을 담당하였다. Adam의 원작 소설로는 *Made to Kill*과 *The Burning Dark* 등 수많은 작품이 있으며, 데뷔작 *Empire State*는 *SciFi Now*와 *Financial Times*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바 있다.